

‘전진우 멀티골’ 전북, 안양 꺾고 10경기 무패 행진

17일 홈에서 2-0 승리
울산, 강원과 1-1 무승부
김천도 제주와 1-1 비겨

프로축구 K리그1 전북현대가 FC안양을 꺾고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전북은 17일 오후 4시30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안양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14라운드 홈 경기에서 2-0 완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전북은 리그 10경기 무패(7승3무)를 달렸다.

코리아컵까지 포함하면 공식전 12경기(9승3무) 무패다.

승점 3을 더한 전북은 8승4무2패(승점 28·득점 20)로 리그 2위를 이어갔다.

선두 대전하나시티즌(승점 28·득점 21)과 승점은 같지만 다득점에서 밀린 2위에 위치했다.

3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한 전진우는 리그 득점 선두(10골)로 올라섰다.

리그 4경기 무승(2무2패)에 빠진 안양은 5승2무8패(승점 17)로 리그 8위에 머물렀다.

전북은 전반 11분에 나온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다.

전진우와 송민규가 골을 합작했다.

전진우가 상대 박스 앞에서 안으로 왜

도하는 송민규에게 패스했다.

이를 받은 송민규는 전진우에게 킥백을 내줬고, 전진우가 오른발로 마무리했다.

프로축구 K리그를 총괄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4월 이달의 선수상을 받는 등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전진우는 또 한 번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프로축구 K리그1 전북현대의 전진우.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제공

전진우는 전반 35분 한 골 더 터트렸다. 박스 오른쪽 측면에 있던 전진우는 박스 안에서 김진규의 패스를 받았다.

이를 눈속임으로 왼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연결, 골대 구석에 꽂히는 득점을 기록했다.

이후 양 팀은 득점을 위해 분투했다.

전북은 추가골, 안양은 만회골을 위해 후반전을 소화했다.

안양은 후반 26분 토마스의 중거리슛으

로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골키퍼 송범근에게 막혔다.

그렇게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경기는 전북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

오후 7시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선 강원FC와 울산 HD가 1-1로 비겼다.

이날 경기 결과 강원(승점 18·5승 3무 6패)은 7위, 울산(승점 25·7승 4무 5패)은 3위에 자리했다.

팽팽했던 전반전 이후 후반전에 돌입한 두 팀이 골을 주고받았다.

울산은 후반 19분 서명관의 선제골이 나왔지만, 강원은 후반 45분 조진혁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1-1 무승부로 끝났다.

같은 시간 김천중합운동장에 김천 상무와 제주SK도 1-1 무승부에 그쳤다. 김천은 승점 24(7승 3무 4패)로 4위, 제주는 승점 12(3승 3무 8패)로 10위가 됐다.

먼저 웃은 쪽은 이동경의 선제골이 나온 김천이었지만, 유리 조나탄의 페널티킥 동점골이 터진 제주와 함께 승점을 나눠 가졌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투수 정해영.

KIA 정해영, 133SV로 선동열 넘었다

정해영 “타이거즈 역사에 이름 남겨 큰 영광”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마무리 투수 정해영이 타이거즈 구단 역대 최다 세이브 기록을 새로 썼다.

정해영은 1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솔뱅크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 9회 등판해 1이닝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 세이브를 올렸다.

팀이 5-2로 앞선 9회말 마운드에 오른 정해영은 오명진과 강승호를 연거푸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대타 김기연을 3루수 땅볼로 처리하면서 시즌 12세이브째를 달성했다.

이로써 개인 통산 133세이브를 달성한 정해영은 선동열의 통산 132세이브를 뛰어넘어 타이거즈 구단 역대 최다 세이브 기록을 경신했다.

정해영은 구단을 통해 “타이거즈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돼 기쁘고, 큰

영광이다.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이런 대기록을 달성했다”며 “앞으로 다른 기록들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팀의 승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0년 1차 지명으로 KIA에 입단한 정해영은 2021년부터 마무리 투수로 뛰며 그해 34세이브를 올렸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32세이브, 23세이브를 작성했고, 지난 시즌에는 31세이브로 생애 첫 구원왕을 차지했다.

정해영은 지난 13일 광주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세이브를 추가해 23세 8개월 20일의 나이로 KBO리그 역대 최연소 5시즌 연속 두 자릿수 세이브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뉴시스

양현종 6이닝 7K 1실점… KIA, 두산과 더블헤더 싸늘이 ‘3연승’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두산 베어스와의 더블헤더를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KIA는 1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펼쳐진 2025 신한 솔뱅크 KBO리그 두산과의 더블헤더 2차전에서 4-1로 승리했다.

앞서 벌어진 더블헤더 1차전에서 에이스 제임스 네일의 호투 속에 5-2로 이긴 KIA는 2차전까지 승리하면서 3연승을 달렸다. KIA의 시즌 성적은 21승 22패가 됐다.

더블헤더를 모두 진 두산은 19승 2무 24패를 기록해 9위에 머물렀다.

KIA의 토종 좌완 에이스 양현종이 6이닝 동안 7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6피안타(1홈런) 1실점으로 호투, 팀의 연승에 앞장섰다.

양현종은 이날 호투로 시즌 2승째(4패)를 따냈다.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선발 등판 기회를 얻은 두산의 고졸 우완 신인 투수 홍민규는 3%이닝 6피안타(1홈런) 4실점으로 흔들리며 프로의 높은 벽을 느꼈다. 홍민규는 프로 데뷔 첫 패전(2승 1세이브)을 떠안았다.

KIA는 1회말 2사 1루에서 최형우가 좌중간 적시 2루타를 날려 선취점을 뽑았다. 두산이 2회초 타진 김재환의 중월 솔로 홈런(시즌 6호)으로 동점을 만들



지난 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5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SSG 랜더스의 더블헤더 2차전 경기, 1회말 KIA 선발 양현종이 공을 던지고 있다.

었지만, KIA는 3회 3점을 내며 다시 리드를 가져갔다.

3회말 선두타자 오선우가 우전 안타를 날린 뒤 최원준이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시즌 3호)을 작렬했다.

후속타자 김도영이 2루타를 날린 뒤 최형우, 김선빈의 연이은 내야 땅볼로 득점하면서 KIA는 4-1로 앞섰다.

양현종은 2회 솔로 홈런을 맞은 것을 제외하고는 실점하지 않으며 호투를 이어갔다. 3점차 리드를 유지한 KIA는 7회부터 불펜을 투입했다. 전상현(%)이닝)과 이준영(%)이닝), 조상우(1이닝)가 줄줄이 무실점 투구를 펼치면서 KIA의

3점차 리드를 지켰다.

9회초 마운드에 오른 KIA 마무리 투수 정해영은 안타 1개만 내주고 1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시즌 13번째 세이브(1승 2패)다.

정해영은 더블헤더 1차전에서도 5-2로 앞선 9회 등판해 1이닝 무실점으로 막고 세이브를 수확했다. 개인 통산 133번째 세이브를 거둬 선동열(132세이브)을 넘고 타이거즈 구단 통산 최다 세이브 신기록을 썼다.

2차전에서도 세이브를 따내면서 정해영은 이 기록을 134세이브로 늘렸다.

/뉴시스

나주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방문…선진 체육시설 견학

지역 체육행정 역량 강화 도모…나주시청 육상팀 신소망 선수 격려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지역의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충북 진천에 위치한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해 선진 체육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견학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은 2017년 개촌 이후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지로 자리잡았으며 35개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스포츠 훈련시설이다.

이번 견학은 지역 체육행정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체육 인프라와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직접 살펴봄으로써 향후 나주시 체육정책 수립 및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반영하고자 마련했다.

훈련 현장을 둘러보며 선수촌의 과학적인 훈련 지원 시스템, 체육인 복지시설, 종목별 전문 훈련장 등을 살피고 대한체육회 관계자로부터 운영 방식과 국내 외 스포츠 정책 동향에 대한 설명도 청취했다.

신소망 선수는 지난 4월 개최된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최종선발대회’에서 여자 일반부 800m 종목 1위를 차지해 오는 27일부터 경상북도 구미에서 열리는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

김복수 나주시 관광문화복지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벤치마킹과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전문 체육인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빛과 바람이 기억하는
500년의 흥겨움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

백성포만놀이

2025.5.29.(목)~6.1.(일)
단오마당(단오제전수교육관)
축제마당(법성포뉴타운문화광장)

주최/주관 (사)법성포단오제보존회 /법성포단오제제전위원회 후원

국가유산청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군의회
한국수력원자력 KH 영광수력 교비관리팀